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당선

전국 51.84% 득표 ... 최순영, 박상만, 손덕헌, 허원 부위원장 당선

장창열 후보가 금속노조 13기 위원장에 당선됐다.

장창열 위원장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엄상진 사무처장 후보자는 전국에서 71,528표를 받았다. 투표조합원 51.84%가 지지한 결과다.

장창열, 이상섭, 엄상진 당선자는 ‘완전 투쟁, 강한 승리, 미래장악 금속노조’ 라는 으뜸 구호를 내걸고 선거에 나섰다. 당선자들은 ▲완전투쟁 - 계획과 준비로 싸우는 완전체 투쟁 ▲강한승리 - 성과를 만들고 제도로 남기는 투쟁 ▲미래장악 - 노조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혁신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공약으로 △합의하는 집행·독단 독선 배제 △노동중심 산업정책 개입 실현 △산별교섭 투쟁본부 신설·총선 의제화 △노조 이미지 개선·노동운동 사회고립 해결 △윤석열 정권 포위 시민 저항 형성 △산업공동화·외투자본 먹튀·후자구조조정·사모펀드 인수 특별대책



수립 △5대 고용의제(신규·청년·여성·정규직화·고령) 사회의제화 △복수노조 전담지원 체계 수립·공동활동 지원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 △산업전환 미리 대비 조합원 불안 해소 △강력부터 규약까지 노조 재설계 △노조 소통방식 혁신 △450만 제조업 노동자 조직하는 금속노조 실현 △노동진보정치 추구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장창열 위원장 당선자는 “같은 곳에 서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노조 대신 지역, 업종, 서 있는 곳은 달라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금속노조를 만들겠다” 라고 강조했다.

장창열 위원장 당선자는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으로서 금속노조 6기 대외협력실장, 지부 교육위원·현장

조직위원, 지부 미래변화대응 TFT 1팀장을 역임했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당선자는 포항지부 조합원으로서 금속노조 창립부터 포항지부 4기 부지부장, 9·10·11기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엄상진 사무처장 당선자는 한국지엠지부 조합원으로서 지부 창원지회 수석부지회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한편, 금속노조 부위원장에 기호 1번 최순영(한국지엠지부) 59.60%, 기호 3번 박상만(현대자동차지부) 54.90%, 기호 5번 손덕헌(현대자동차지부) 후보가 50.67% 득표로 당선됐다. 비정규할당 부위원장에 허원(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후보가 당선 확정됐다. 기호 2번 서쌍용(현대자동차지부), 기호 4번 김병조(현대중공업지부) 후보는 투표자의 과반 득표에 미치지 못해 찬반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